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 일상 속 기억의 시각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Expression of everyday memories expressed in a
transformed form
- Focused on My Art Works -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강현신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 일상 속 기억의 시각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섭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강현신

강현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 하 원 (인)

심사위원 김 섭 (인)

심사위원 임 영 재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년 2월

국 문 요 약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 일상 속 기억의 시각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형태를 변형 또는 해체시켜 재구성하는 조형적인 표현 방법과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주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행복을 미루며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고 끊임없이 입장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외부의 시선과 기준에 개인의 정체성은 불분명해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잃고 만다. 이로써 스스로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 남게 될 뿐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과 기억을 통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엉뚱하고 유쾌한 상상을 한다. 계속되는 기억과 상상의 모든 요소들을 분해시켜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형태들로 가시화한다. 해체한 형태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조합하여 반추상적 조형물로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 <Sunset>(2020)의 경우 해가 질 무렵, 지하철 안이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행동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냈다(<그림 20> 참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생각 속에 감춰왔던 행위를 눈에 보이며 만질 수 있는 작품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지루하고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 새롭고 특별한 일상의 에피소드로 탄생시키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감춰왔던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요소와 형태의 단순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신체가 어떠한 형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연구한다. 조형적 형상에 드러나는 감정을 탐구하고 감추고 있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여 생각의 틀을 확장시키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1 |
| 1.1.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 |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 제2장 이론적 탐구 및 표현 방법 | 3 |
| 2.1. 이론적 탐구 | 3 |
| 2.1.1. 조형적 요소와 원리 | 3 |
| 2.1.2. 단순화의 표현과정 | 3 |
| 2.2. 표현의 방법 | 5 |
| 2.2.1. 재구성된 기억의 형상화 | 5 |
| 2.2.2. 변형된 신체와 재료 | 6 |
| 제3장 결론 | 8 |
| 작품 목록 | 9 |
| 연구 작품 | 10 |
| 참고 자료 | 30 |
| 참고 문헌 | 31 |
| Abstract |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우리는 왜 이런 정해진 삶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반복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인은 현대사회의 규제와 통제라는 틀에서 동시대의 현대인들이 다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이 규정해놓은 규칙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우선 현대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경쟁의 본성은 결과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실패와 패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승리감과 성취욕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착은 인간에게 경쟁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굴레가 된다.”¹⁾ 학생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이 된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억지로 정해진 삶이 평범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현실의 그물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보며 탐구한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지만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사실상 내면화하며 살아가기는 힘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눈앞에 닥친 상황을 실행하지 못해 이후 머릿속에서 그저 상상하거나 후회하며 지나친 행동과 일들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변화시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인은 기억과 상상에서 인간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 탐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인체’는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소재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몸이 보이는 행동들을 기억하며 단순하게 형상화시킨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특정 행위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 묘사를 하지 않고 형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의미를 쉽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상태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경험은 기억되고 그 기억 중 가장 뚜렷한 이미지만이 작품에 남게 된다.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봄을 의미 한다. 이는 기억된 생각(재생적 상상)이나 새로운 심상(창조적 상상)을 떠올리는 일이다.”²⁾ 본인은 본인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기억 속에 잠재된 배경/물건/등장인물 그리고 그때 느

1) “경쟁-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쟁/협력 양립 불가능설 2.” 2020.10.07. 웹 접근.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2%BD%EC%9F%81&oldid=27701545>

2) 상상-네이버. 국어사전. 2020.10.09. 웹 접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2a8a2bbc78d477182ab5bbd6c2a2062>

졌던 개인적인 감정을 조합해 시각화시킨다.

평범한 일상 속 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특별한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작품 속 공간 구성과 표현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인은 기억과 상상을 구체적인 조형적 형태로 드러내고 변형시키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연구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피트 몬드리안 (Piet Mondrian)과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을 통해 조형예술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각적 기본구성요소인 면적요소와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사실적인 형태에서 단순화·추상화하는 과정과 단순함이 가지는 보편성에 대해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본인작품에 표출된 기억의 조각들을 형상화시키고 재구성하는 표현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작품의 중심적인 요소인 신체의 표현을 위해 사용한 재료적 특성과 표현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탐구 및 표현 방법

2.1. 이론적 탐구

2.1.1. 조형적 요소와 원리

“조형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을 의미한다.”³⁾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이나 일반적인 조형물에는 시각예술의 기본조형요소와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본인은 기초적인 조형요소와 원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시각적 이미지에 본인의 작품 제작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형예술 표현의 기본 구성요소에는 점, 선, 면, 형태, 명암, 색,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필수적인 단계인 조형발상은 조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입체적인 3차원, 4차원의 형태로 영역을 확산시킨다.”⁴⁾ 본인은 조형요소 중 면, 형태, 공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기하학(幾何學, geometry)에서 면은 면적을 지닌 2차원의 평면으로 일정한 모양이 없고 물체의 보편적인 모습의 외곽, 즉 윤곽을 나타낸다. 형태는 2차원적인 면에 의하여 형성이 되며, 하나의 입체적인 덩어리로 생겨난다.”⁵⁾ 본인은 이러한 조형의 원리를 이용해 2차원의 평면적인 형태를 이어 붙여 공간성을 가진 3차원적인 형태의 입체조형물로 나타냈다.

이는 우리에게 시각과 촉각의 효과로 한층 더 완전한 양감(volume)과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 입체조형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조형이 가진 미적조건에 대한 객관성을 키워주고, 조형적 원리에 따른 심리적 효과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1.2. 단순화의 표현과정

20세기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몬드리안은 자연의 재현 요소를 없애며 최대한 절제하고 단순화한 ‘기하학적 추상’에 이른다. 몬드리안의 <나무연작>은 그 과정으로 가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도판 1> 참고). 이처럼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피카소의 황소연작인 <The Bull>은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처음에는 황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도판 2> 참고). 황소 근육의 질감과 윤

3) 조형-네이버. 국어사전. 2020.10.13. 웹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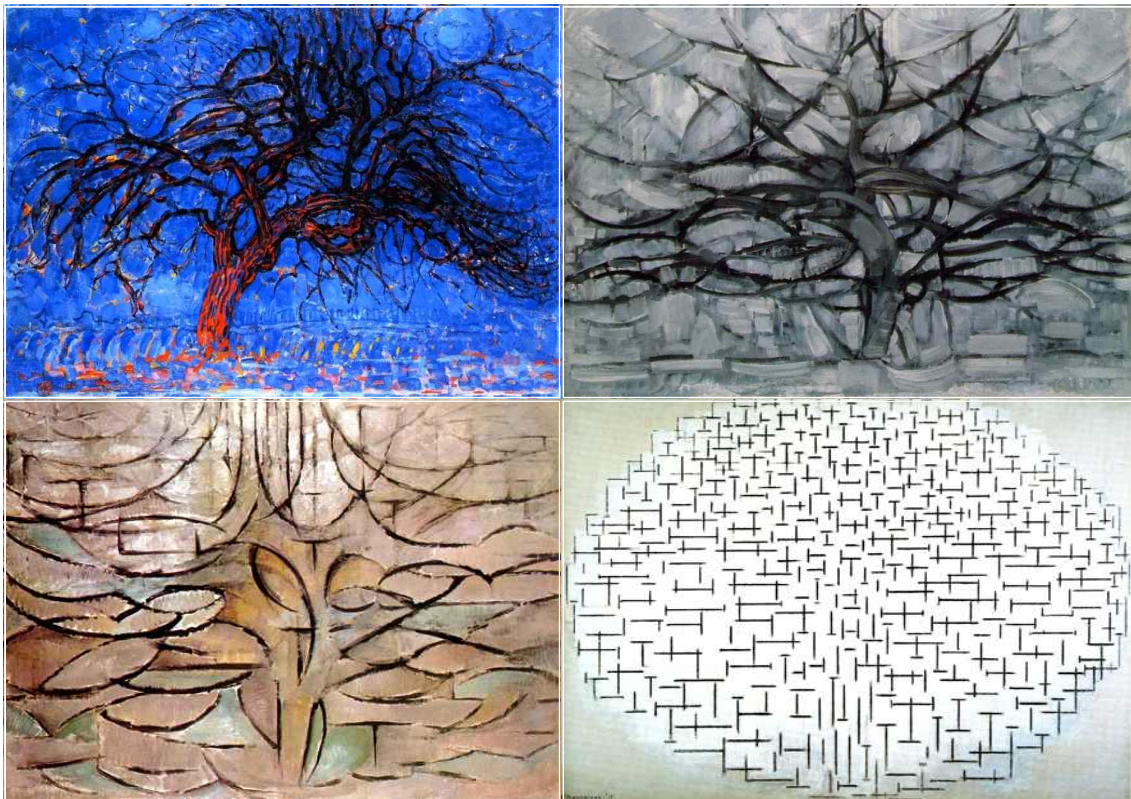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5bb07b7a05c4f28848fb9a22e4fc0a5>

4) 윤민희. 새로운 조형의 이해 (예경, 2008년) p.63~7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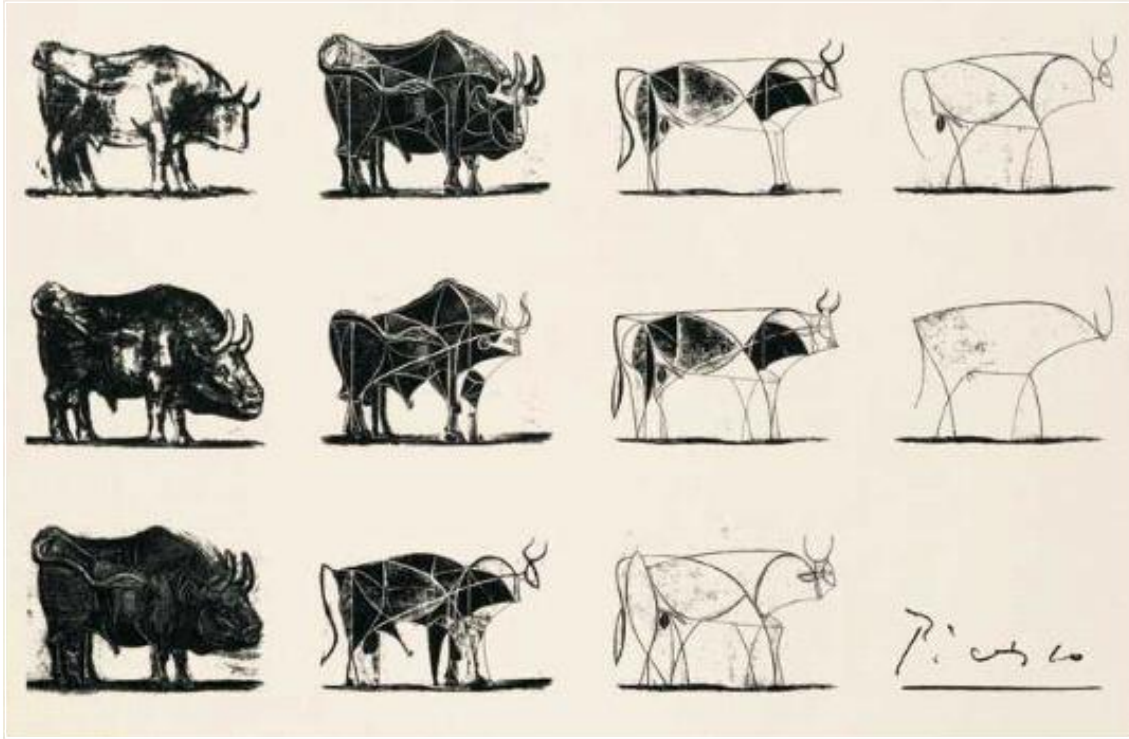
5) 윤민희. 새로운 조형의 이해 (예경, 2008년) p.80 참고

곽을 살리며 강조된 양감은 점차 대상을 분할하고 간략해지면서 전체적인 비례와 형태만이 남긴 채 몇 개의 선만으로 황소를 나타냈다. 몬드리안의 <나무연작>과 피카소의 <The Bull>에서 세부묘사는 대부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본인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단순화시키는 표현과정에 중점을 뒀다. 본인의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에서 뽑아낸 인간의 신체나 사물, 배경 등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대상의 중요특징만 도출하여 표현했다. 구체적인 대상의 이미지를 생략 또는 변형시켜 반추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나의 기억을 조형화하기 위해 재구성하였다.



<도판1> Piet Mondrian. Tree series. Oil on canvas. 1908-1912



<도판2> Pablo Picasso. The Bull. a series of eleven lithographs. 1945-1946.

2.2. 표현의 방법

2.2.1. 재구성된 기억의 형상화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개인의 삶에 크게 혹은 작게 영향을 끼친 갖가지 상황들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된다. 본인은 기억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경험을 끄집어내어 그때 느꼈던 감정 또는 생각을 단순화한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표현한다. “이는 기억의 형상들을 재현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형태발상이라고 말한다. 형태발상은 개인의 내적인 감흥, 체험, 영감, 문화현상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⁶⁾ 또, 생활의 경험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요소들로써 시각적인 이미지를 발상할 수 있다.

본인은 기억의 덩어리 속 인물, 사물, 감정, 배경 등 하나하나 해체해 원하는 이

6) 윤민희. 새로운 조형의 이해 (예경, 1008년) p.64 참고

미지나 형태로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상상하게 만들며 새로운 결합물로 도출된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또, 기억에 내재된 감정을 통하여 모든 형태를 계속해서 변형하는 과정을 따르게 된다. 본인은 개인의 솔직한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2.2.2. 변형된 신체와 재료

아주 오래 전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신체는 미적 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인간은 신체가 갖는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몸은 빠질 수 없는 본체이면서 동시에 당연한 대상이다. 희로애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달리 간접적이지만 더욱 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신체이다. 몸은 규율과 체제 속에서 훈련되어 왔으며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예절 등으로 사회적 환경에 적응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본인은 작품에서 신체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 나타나는 규정된 자세와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 분석하며 속박된 생활 안에서 일탈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관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로 나타낸다.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은 신체를 변형시키고 꺾음으로써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율에 인간이 가진 욕구를 분출하고 해방을 추구하고자 한다. “ ‘꺾다’ 는 길고 탄력 있거나 단단한 물체를 구부려 다시 펴지지 않게 하고, 몸의 한 부분을 구부리거나 굽힌다는 뜻이 담겨있다. 즉, 본래의 모습과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⁷⁾

본인의 주관적 개입은 신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의 요소들도 형태를 변환하여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반대로 본연의 형상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찾게 됨으로써 문득 깨달음을 느낄 수 있게 의도하여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변형이 가능한 나무, 플라스틱 소재인 포맥스(Formax)와 아크릴을 이용해 입체 조각물로 나타낸다. 표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자면 인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을 본인이 직접 자세를 취해 사진을 찍어 연출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드로잉을 거친다. 그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변형시켜 2차 드로잉을 한다. 2차

7) 꺾다-네이버, 국어사전. 2020.11.28. 웹 접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32240d001ea4aa681a9f60c4e2a5a03>

드로잉 이미지를 컴퓨터에 연결된 cnc기계⁸⁾로 드로잉의 윤곽선을 따라 나무 혹은 포맥스를 잘라내 형상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제작된 형상들을 구성 또는 연결시켜 입체형태로 조립 또는 구성한다.

입체적 조형물이 가지는 특징들은 조명이 비취졌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통해 더욱더 공간감이 살아나며, 작품과 관객들 사이에 다양한 각도에 따른 공간감이 형성되어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평면이 아닌 입체로써 현실적 공간에 개인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관객이 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체험하며 소통하는 장소로 경험 할 수 있다.

8)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 (컴퓨터기반 수치제어)
CNC기계는 원시재료를 깎아내 (subtractive : 절삭하는) 원하는 가공품을 만들어 냄.

제3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속되는 일상에서 개인적인 상상과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조형적으로 변형하고 내재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찾아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미루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에 마주한 인간들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묶여있던 욕구와 진심을 표출하며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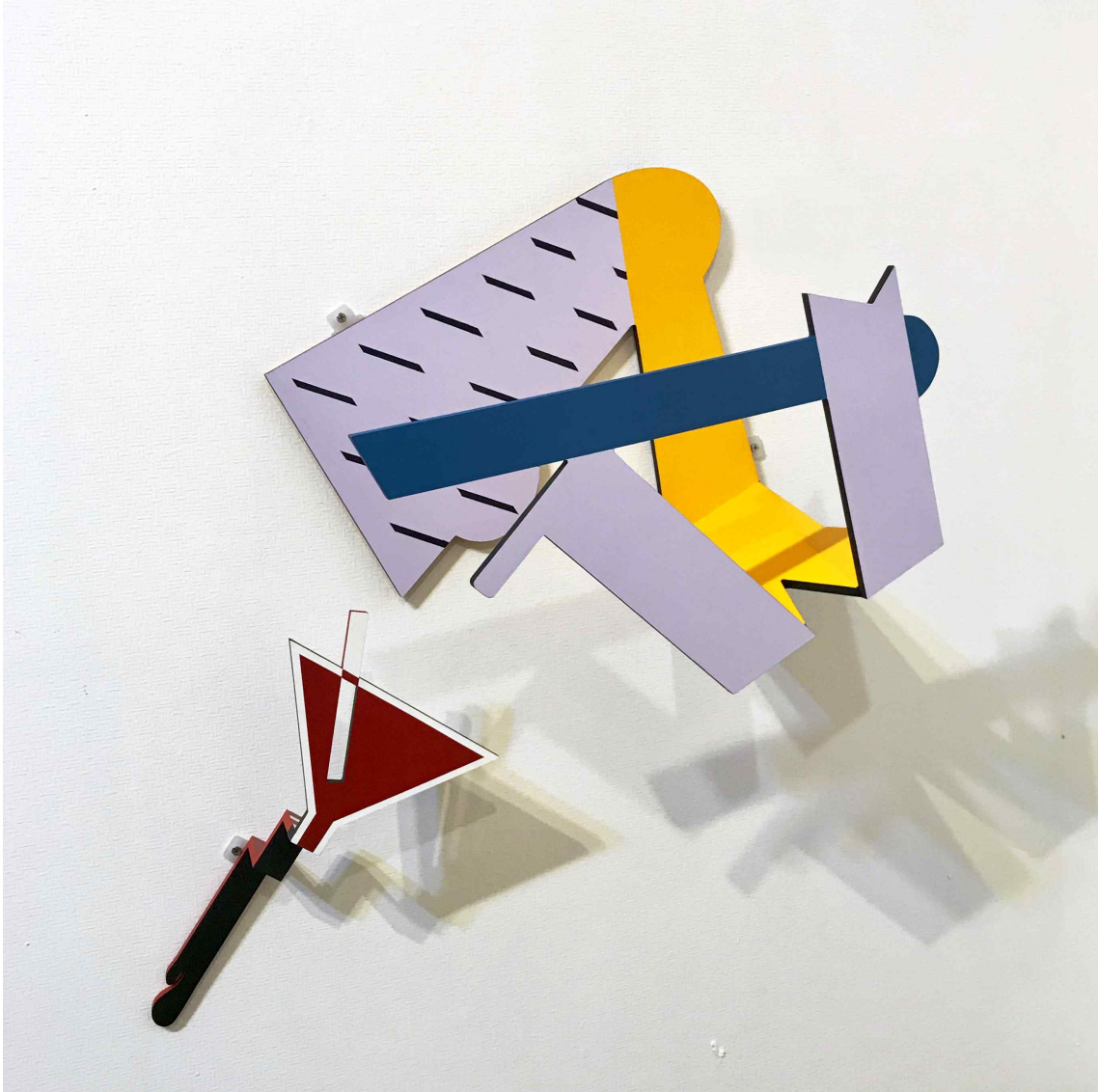
본인은 기억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스스로의 신체를 꺾고 변형시키는 동시에 밝은 색으로 위장하는 이중적 모습을 통해 때로는 타의에 의해 변형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불편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초적인 조형의 요소와 원리 등 조형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대상의 묘사가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단순화하는 표현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형적 개념과 특성으로 2차원의 평면적인 표현에만 익숙해진 사고를 입체로 변환시키게 되었으며, 작품에 대한 좀 더 심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잃어 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간혀있던 내면에서 나오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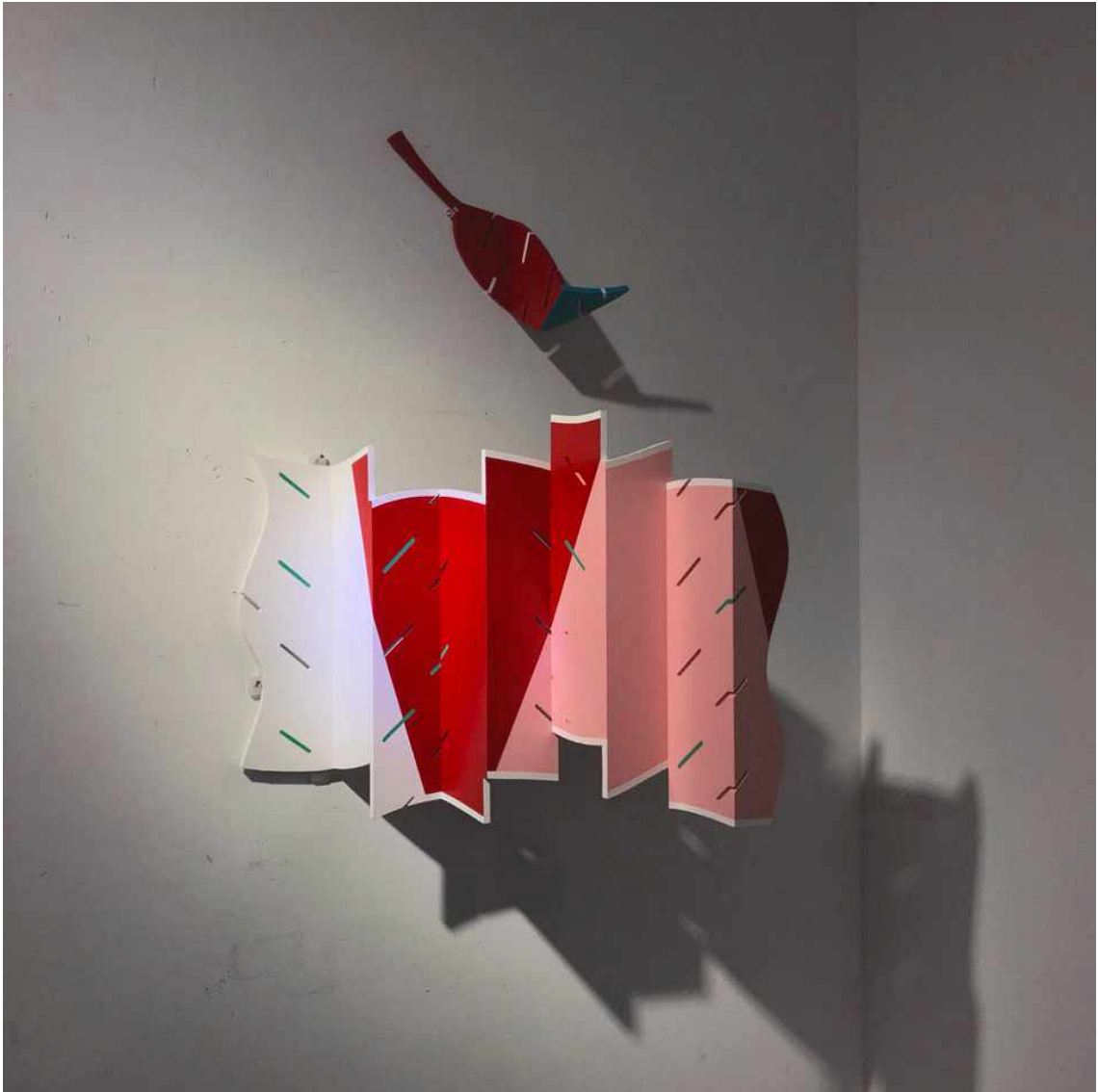
작 품 목 록

- <작품1> In the box 27x32x41cm Mixed media 2018
- <작품2> Zigzag 48 x 60 x 15cm Mixed media 2018
- <작품3> Hold tight 77x66x115cm mixed media 2019
- <작품4> Striped hair 40x66x155cm mixed media 2019
- <작품5> Puffy 95x65x39cm Mixed media 2019
- <작품6> Let 's go hide 98x72x30cm Mixed media 2019
- <작품7> Dyeing 38x138x125cm mixed media 2019
- <작품8> A wild party 90x30x132cm mixed media 2019
- <작품9> Frog man 51x42x73cm mixed media 2019
- <작품10> Don't touch! 47x73x41cm mixed media 2019
- <작품11> 바게트 빵 결계 115x70x103cm mixed media 2019
- <작품12> Break time 30x75x180cm mixed media 2019
- <작품13> 꼭꼭 숨어라 117x85x40cm mixed media 2019
- <작품14> Wake up! 58x63x98cm mixed media 2020
- <작품15> Wake up! 2 145.5x112.1cm mixed media 2020
- <작품16> Icecream man 110x74x14cm mixed media, 2020
- <작품17> Pink sand 162.2x130.3cm mixed media 2020
- <작품18> Resting 94x68x6cm mixed media 2020
- <작품19> Night view 46.5x54x8cm mixed media 2020
- <작품20> Sunset 150x110cm mixed media 2020

연구 작품



<작품1> In the box 27x32x41cm Mixed media 2018



<작품2> Zigzag 48 x 60 x 15cm Mixed medi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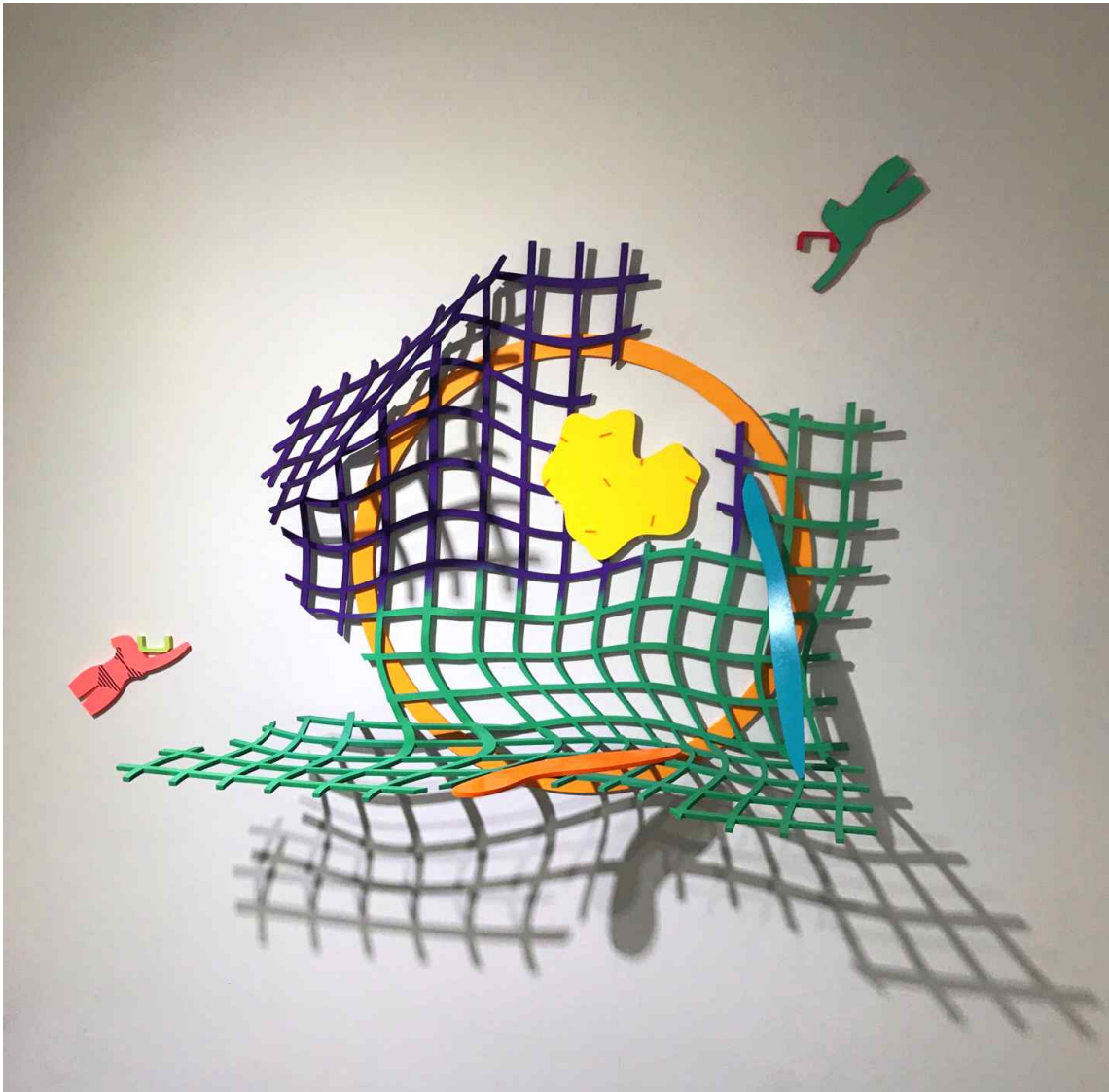
<작품3> Hold tight 77x66x115cm mixed media 2019



<작품4> Striped hair 40x66x155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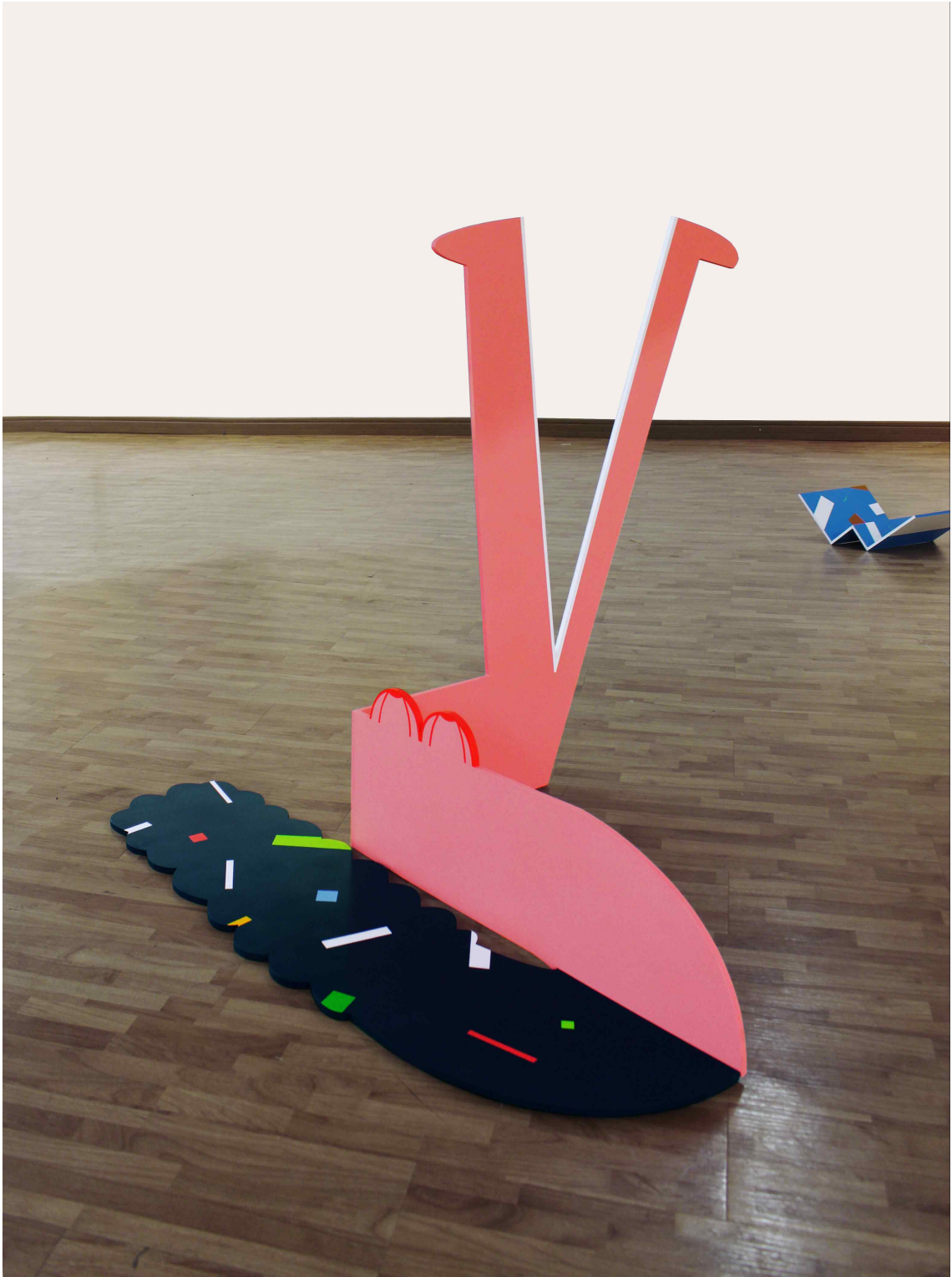
<작품5> Puffy 95x65x39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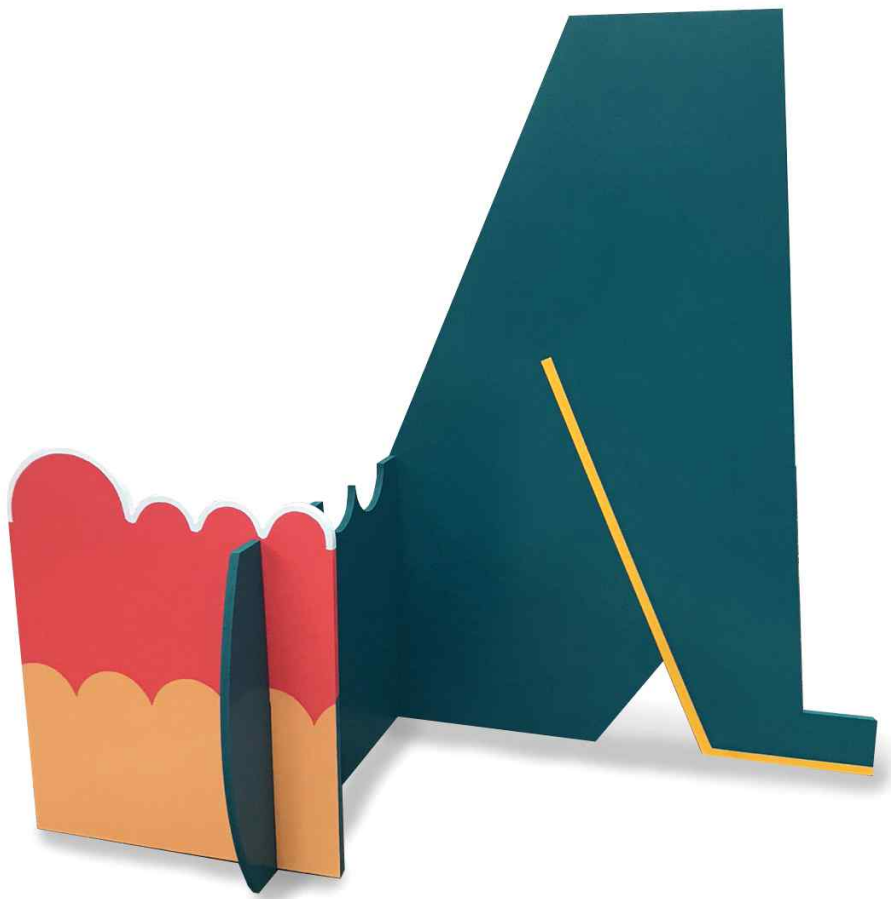
<작품6> Let's go hide 98x72x30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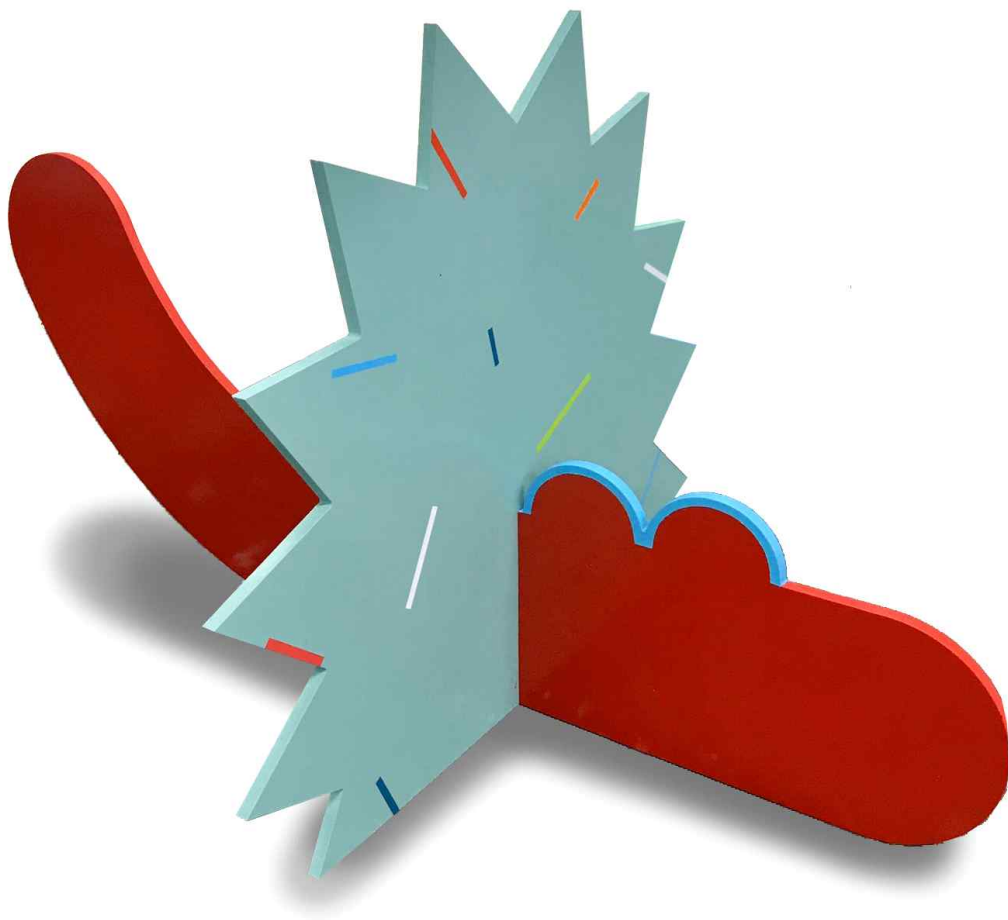
<작품7> Dyeing 38x138x125cm mixed media 2019



<작품8> A wild party 90x30x132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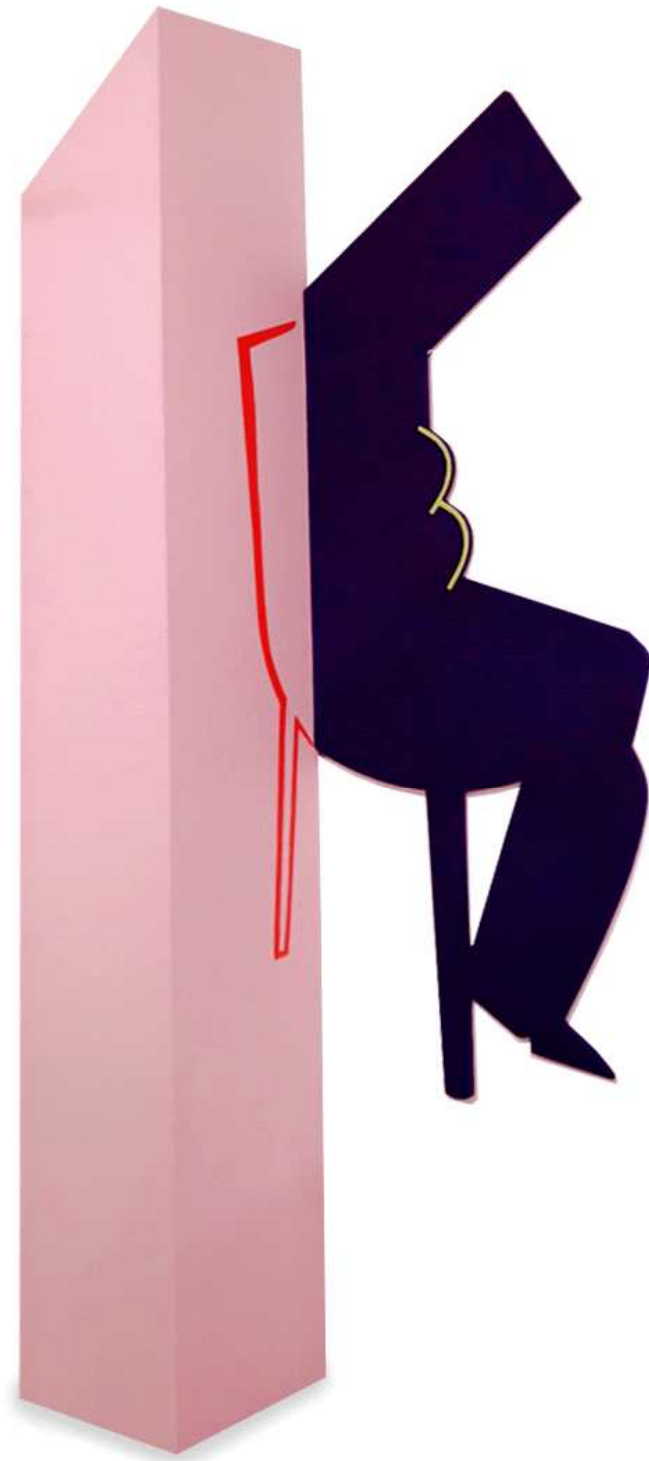
<작품9> Frog man 51x42x73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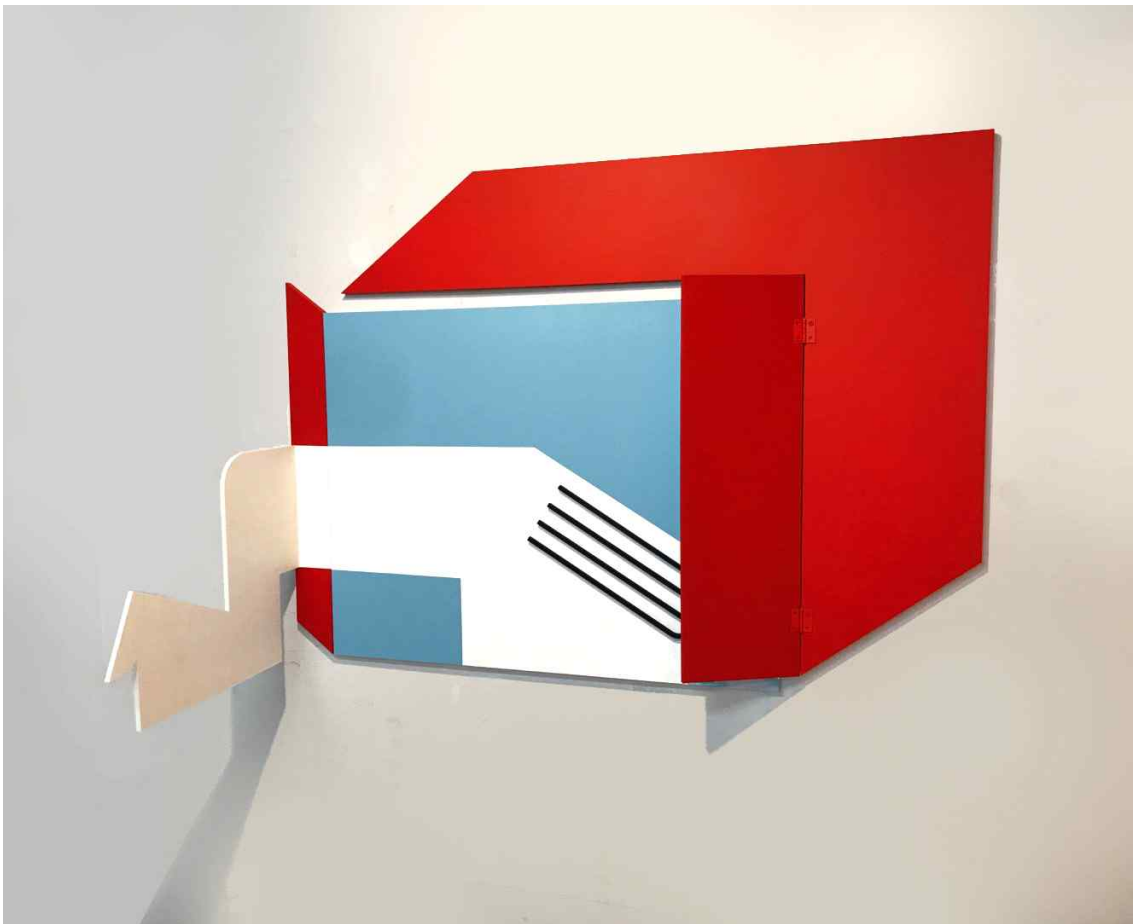
<작품10> Don't touch! 47x73x41cm mixed media 2019



<작품11> 바케트 빵 결계 115x70x103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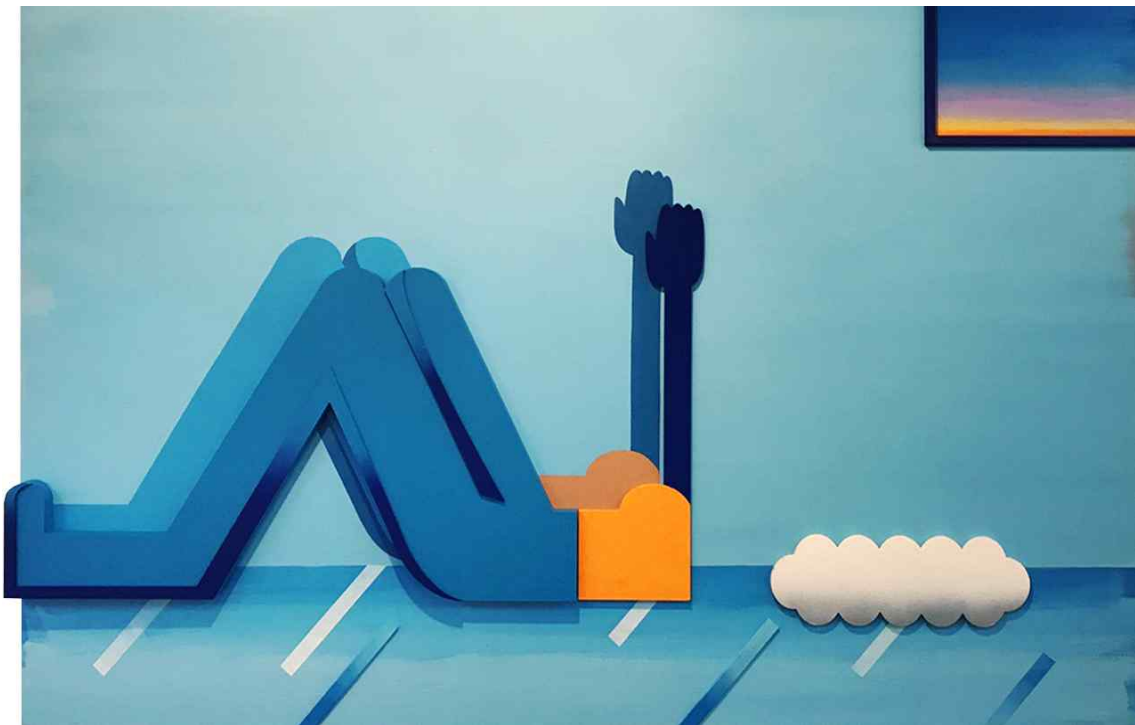
<작품12> Break time 30x75x180cm mixed media 2019



<작품13> 꼭꼭 숨어라 117x85x40cm mixed media 2019



<작품14> Wake up! 58x63x98cm mixed media 2020



<작품15> Wake up! 2 145.5x112.1cm mixed media 2020



<작품16> Icecream man 110x74x14cm mixed medi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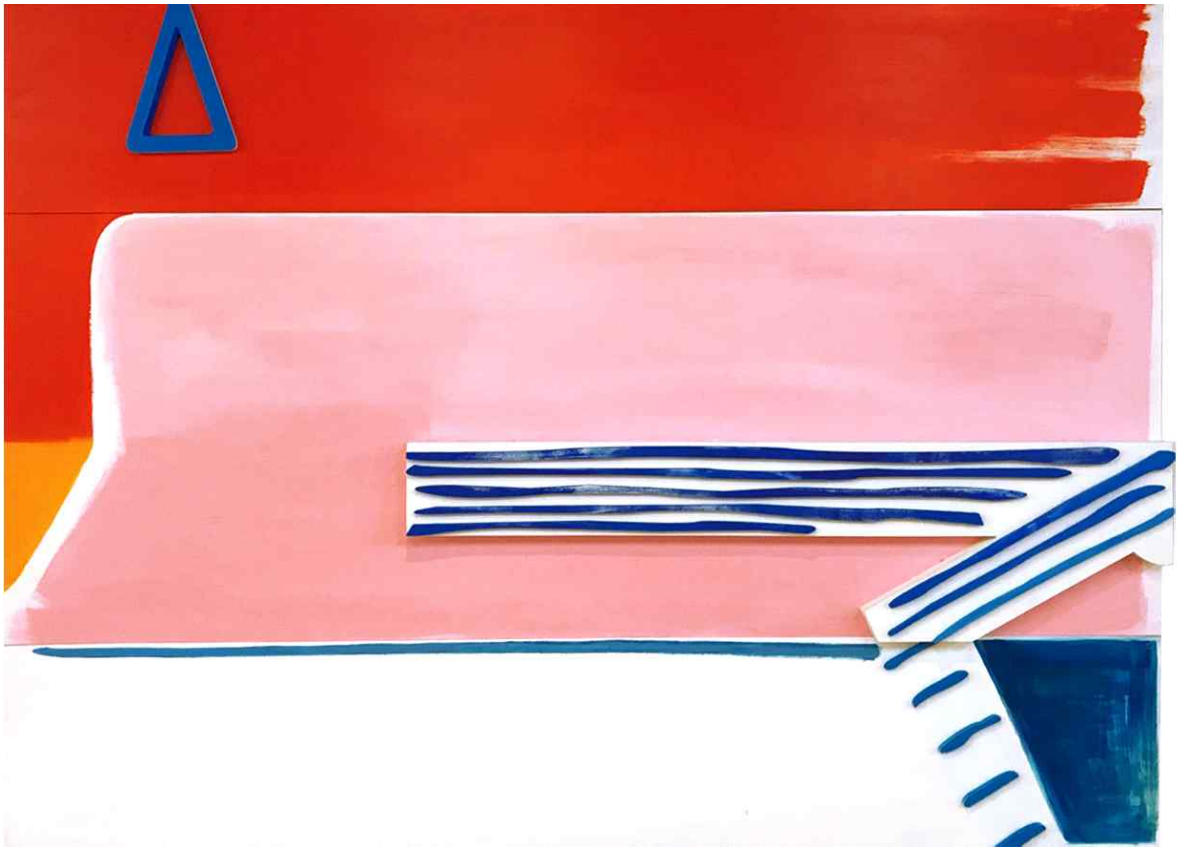
<작품17> Pink sand 162.2x130.3cm mixed media 2020



<작품18> Resting 94x68x6cm mixed media 2020



<작품19> Night view 46.5x54x8cm mixed media 2020



<작품20> Sunset 150x110cm mixed media 2020

참 고 자 료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전 전경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정주은, 『몸, 예술로 말하다』, 쉬레이(역) 시그마북스, 2011
-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예경, 2008
- 오근재, 『입체조형과 새로운공간』, 서울:미진사, 1991
- 피트 몬드리안/ 전해숙, 『몬드리안의 방 신조형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예술』, 경기;열화당, 2008
- 하요 뒤히팅 지음,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미술문화, 2008
- 허버트 리드, 『간추린 서양현대조각의 역사』, 서울:시공사, 1998
- 박은주(발), 『한국현대조각의 흐름과 양상』, 창원:경남도립미술관, 2009

< 학위논문 >

- 서정현. 1986. 『꽃의 단순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
- 박지선. 2009. 『입체조형의 원리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전문계 고등학교 디자인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허누리. 2019. 『동시대 미술에서 일상 오브제를 통한 기억의 표현성 연구:설치 미술과 본인의 작품의 연관성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 조혜은. 2005. 『신체이미지의 변형을 통한 조형적표현에 대한연구:본인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 전자문헌 >

- 김경현(소설가). 2015.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2020.10.25.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501252105165#c2b
- 묵자. 2016. "우리는 왜 죽은 시인의 사회에 열광 하는가". 2020.10.20.
<https://brunch.co.kr/@cjimjmbest/10>
- 위키백과. "경쟁:경쟁/협력 양립 불가능설2". 2020.10.20.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2%BD%EC%9F%81&oldid=27701545>
- 장형준. 2015. "가장 단순화된 조형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2020.10.21.
<https://brunch.co.kr/@meanimize/19>
- 박종수. 2017. "몬드리안의 방". 2020.10.22.
<https://brunch.co.kr/@nplusu/75>

· 오현주(기자). 2020. "이주현의 혁신미술12:단순화의 힘 버리면..얻는다".
2020.10.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5896840&mediaCodeNo=257>

· 시사뉴스. 2002. "갤러리 / 단순, 왜곡, 과장된 인간들의 모습 - <현대조각과 인체>". 2020.10.19.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713#ODLM>

· 산악노도. 2013. "조형요소와 원리". 2020.10.2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simsim&logNo=7017137692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Abstract

Expression of everyday memories expressed in a transformed form

- Focused on My Art Works -

This thesis researches the formative way of expression that reorganizes after transforming and disassembling based on personal memories with the subject of contemporary people who have been losing their identity.

Contemporary people are entangled in a huge and complicated social structure. They hold their present happiness by adjusting themselves to others, and endlessly change their state and behavior. Outside viewpoints and standards blur an individual's identity, destroying one's individuality. As a result, one does not find satisfaction and happiness but feels hollow. The researcher believes it is meaningful when one attempts to find self-determinism rather than to accept life in a social structure. My work expresses this idea based on experience and memory.

I make extraordinary and delightful fabrications about the past and coming future. The elements of my continuing memories and imaginings are disassembled and visualized into forms that are reorganized as a story. Then the dissembled forms are reorganized and reconstructed into a semi-abstract sculpture. Sunset (Work no. 20) visualizes people lying on their back on any ordinary day when getting on a subway. In this tangible work, people freely make their actions that they have been hiding. Through this process what people dream to get away from their constantly boring life turns into a new special episode. It also realizes the inner identity that people are afraid to express and it attempts to find happiness.

This thesis examines the formative elements of the researcher's work and how the forms are simplified in order to study the transformation

of humans in the work. The emotions in the formative structure are researched in order to expand a frame of thought by making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inner voice.